

2026년 7월, 출범 확정 제물포구·영종구 서구·검단구		<h1>보도자료</h1>		<i>이제는 인천입니다</i> 2025 APEC INCHEON	
배포일자		2024년 4월 19일(금) 총 3매			
담당 부서	안전상황실	담당자	• 안전협력팀장 • 담당자	민동성 ☎440-5751 이정영 ☎440-575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노후·고위험 시설 590개소 집중안전점검

- 4.22일~6.21일까지, 2024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
- 가정용, 다중이용시설 자율점검표 배포 등 안전문화 운동 확산 -

인천광역시는 정부의 안전대전환 추진과 관련해 오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시 관련부서, 군·구, 공사·공단·체육회와 함께 노후·고위험 시설 전반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정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시민들이 직접 점검에 참여해 위험 요인을 발굴·해소하는 재난대비 활동이다.

올해 점검대상시설은 590개소로 어린이 이용시설,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시설, 낚시어선 등의 시설과 주민들이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이번 점검대상에는 어린이 이용시설을 필수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점검해 어린이 안전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월 발생한 영흥도 선재대교 하부공간 전력케이블 화재로 영흥도 주민의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 교량 점검 시에는 하부공간 시설물까지 꼼꼼히 점검해 유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박덕수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4월 23일 집중안전점검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해 참여기관의 준비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시설은 관리주체와 분야별 재난안전전문가로 구성된 152명의 헬프미 안전점검단과 시민단체가 함께 점검할 예정이며, 안전점검 시에는 사물인터넷(IOT) 감지기 계측자료도 활용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가정용과 다중이용시설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해 시민들이 직접 안전점검에 참여토록 해 집중안전점검의 이해와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공공시설물은 예산을 활용해 즉시 보수·보강 조치할 계획이며, 추가 진단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에 재난특별교부세 지원요청 등을 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시설로 보수·보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등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재난위험요소 해소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대전환 집중안전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구조적 위험요인 해소 및 안전관리실태와 점검 체계 확립을 통해 ‘시민을 행복하게 인천은 안전하게’ 안전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집중안전점검 관련사진]

